성평등한 기본소득을 위한 소고

이다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박사과정생 이다은입니다. 누구에게나 조건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소득은 삶의 방식과 지향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하고 매력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기본소득은 여성의 자유와 협상력을 길러 성평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커져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이며, 만약 다르게 작용한다면 이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이다은(2020)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몰성적gender-blind'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과거 여성주의와 기본소득의 논의를 통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소득과 성평등 증진의 가능성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운동에 있어서 언제나 '차이냐 평등이냐'라는 딜레마에 직면해왔습니다. 성평등을 위해서는 남성과 같아져야 하는가, 혹은 여성만의 특수성을 주장해야 하는가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민권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시민권은 유급 남성 노동자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물론 여성도 전일제 노동자가 된다면 유급 노동기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유급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유급노동을 기반으로 한 시민권은 많은 여성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유급노동에 기반하지 않는 기본소득은 누군가의 피부양자인지 혹은 아내인지 등의 이유로 복지에서 배제되었던 자들을 포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기존의 시민권 틀에 맞지 않았던 사람들도 권리로서 기본소득의 수혜자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일제 남성 노동자들도 스스

로를 탈상품화 할 가능성을 기본소득이 열어줌으로써 남성-가장이라는 고정관념도 뒤흔들 수 있으며, 적어진 노동시간으로 집 안의 노동을 여성과 남성이 좀 더 평등한 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합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기존 시민권이 배척하고 있는 여러 소수자를 포괄하는 평등한 시민권 개념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성주의 기본소득을 위한 제언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은 여성주의가 바라는 기본소득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성주의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기본소득 자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가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때때로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에 혼동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기본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의 찬반 이전에 여성주의적 기본소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이 여성주의적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합의로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제도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을 것과 충분성을 담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다양한 여성의 삶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성과 관련된 기본소득 논의는 가정 내에서 여성이 얼마만큼의 협상력을 지닐 수 있는가, 가정 내 돌봄 및 가사노동을 어느정도 분배할 수 있는가 등 정상가족 안의 여성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하지만 비혼의 증가와 출생률 감소, 1인 가구 및 비친족 가구의 증가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포괄할 수 없는 삶이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정상 가족을 벗어나서 변화하는 생활방식에 기본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사회연대의 윤리로서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기본소득은 지급에 조건을 두지 않음으로써 손쉽게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편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실용성은 분명 많은 사람을 기본소득 의제로 끌어올 힘을 가지지만, 기본소득을 탈脫정치적인 것으로 여기게 함으로써 기본소득이 내재한 많은 가치를 보이지 않게 합니다.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자유와 협상력,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를 고려했을 때,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윤리성을 내포하며 여러 주체를 수혜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소득은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나아가는 '연대'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성평등하게 작동하게 하기 위해 프레이저(Fraser, 1997/2017)가 주장한 유급노동과 돌봄의 공유를 제안합니다. 기본적으로 남성-생계부양자와 여성-가정주부 모델에 기반한 성별 고정관념이 해체되지 않고서는 몇몇 여성주의자들이 우려한 대로, 기본소득이 여성을 가정 안에만 위치하게 해 기존 성별분업을 공고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모두 보편적인 돌봄제공자가 될 때 기본소득과 시너지를 이루어 좀 더 성 평등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 안에서 시행되는지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때문에 기본소득과 함께 우리 사회를 좀 더 성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기본소득 논의는 기본소득 담론 내에서도, 여성주의 담론 내에서도 많이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여성과 기본소득에 대한 저조한 논의는 담론 내에서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반영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소득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거나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보다는, 기본소득 담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통해 모두에게 좋은 기본소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이 성 평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혹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성평등한 기본소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담론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성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세밀하고 다양한 여성에 대한 연구가 기본소득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좀 더 평등한 기본소득 개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부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를 주신 계간《기본소득》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참고문헌

이다은(2020).『여성주의 관점의 기본소득을 위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년 2월]

Fraser, Nancy. (1997). 가족임금 그 다음: 후-산업시대에 대한 사고실험.『전진하는 페미니즘』. 임옥희 역(2017), 157-194.